

# “전동킥보드 바뀐 규정 전혀 몰랐다”

범칙금 부과 첫날 전남대·충장로 등 가보니

운전면허 없이 헬멧도 안 쓰고 ‘쌍쌍’... 횡단보도 질주도 여전  
규정 모르는 운전자 대부분...경찰, 내달까지 계도 위주 단속

헬멧을 쓰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가 시작된 13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많은 대학가와 광주도심을 둘러본 결과 헬멧 미착용은 여전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경찰도 단속에 나서지만 헬멧을 쓰지 않거나, 운전면허증 없이 PM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대다수였다.

이날 정오께 찾은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공유형 전기자전거를 타고 교문 안으로 들어서려던 여성 두명이 학교 관계자의 제지를 받아 멈춰섰다.

학교 관계자는 헬멧 미착용자는 교내로 들어갈 수 없다며, 이 여성들뿐 아니라 헬멧을 쓰지 않은 채 PM을 타고 학교 안으로 들어서려는 학생들을 멈춰세웠다.

헬멧을 쓰지 않아 교내 진입이 막힌 한 대학생에게 헬멧 미착용시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아느냐고 묻자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운전면허증도 없는 이용자였다. 이날 전남대 후문

앞에는 헬멧 미착용에 따라 교내 출입이 제한된 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주차해 놓은 30여대의 공유형 PM이 놓여 있었다.

오후 1시께 찾은 광주시 동구 충장로 일대에도 범칙금 부과 대상자들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문화전당 부근 도로에서는 헬멧을 쓰지 않은 20대 남성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P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시 2만원, 승차정원을 초과해 탑승하면 4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야간에 점등장치를 작동하지 않아도 1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음주운전은 10만원, 음주측정 거부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될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PM은 자전거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인도에서 타거나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다.

PM관련 법규는 PM 사고 증가에 따라 강화됐



13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 거리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남성들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멧 미착용 2만원, 횡단보도 주행은 3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 광주-전남지역 PM사고는 17건(2018년)→26건(2019년)→44건(2020년)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 도심에는 지난해 2개 업체 2000여대 수준이었던 공유 전동킥보드가 7개 업체 5000여대로 증가하면서, 올해에만 4월까지 26건의 PM 사고가 발생해 전년의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할 수 있다고 판

단해 오는 6월 말까지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이날부터 법이 바뀌었지만, 아직 새로 바뀐 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고 판단해 계도 중심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오월 광주’ 지켜낸 전남대병원 “미안마 의료진을 응원합니다”

직원 1300여명 3500여만원 성금

전남대병원이 군부의 폭압에 항거하는 미안마 국민과 의료인들에 대한 지지와 후원에 적극 나섰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야전병원을 방불케 했던 전남대병원은 군사 쿠데타 발생 후 민주화 열망을 불태우고 있는 미안마 국민들과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고자 전 직원의 뜻을 모았다.

전남대병원 본원을 비롯해 화산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 직원 1340명의 정성을 모은 총 3560여만 원의 성금을 마련했으며, 26일 미안마광주연대인(재)5·18기념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남대병원은 ‘오월광주’ 당시 군부의 무자비한 진압에 따른 수많은 부상자들을 밤새도록 치료하면서 희생을 최소화하고, ‘광주정신’을 확립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계엄군의 발

포 이후 병원은 사상자로 가득했으며, 초음속 수술은 밤낮없이 진행됐고 계엄군의 병원을 향한 사격도 있어 사실상 전남대병원은 야전병원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단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곳곳에 병원을 지키며 본인의 업무를 수행했던 의료진의 사명감은 이후 국내·외 의료계의 표상이 되기도 했다.

또한 전남대병원은 당시 직접 진료활동을 했던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 25명의 생생한 증언을 담은 ‘10일간의 야전병원’이라는 증언집을 지난 2017년 발간해 언론·의료계·관련 단체 및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전남대병원이 미안마 의료진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게 된 것은 바로 41년 전과 비슷한 양상이 미안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안마 인권을 위한 의사협회와 15개 의

차·약대 학생연합이 국제기구에 ‘의료인으로서 부상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수없이 접하고 눈앞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무력함과 엄청난 죄책감을 느낀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전남대병원이 발간 ‘10일간의 야전병원’에도 미안마 의료인의 심정과 비슷한 증언이 그대로 담겨있다.

증언 중 당시 흉부외과 레지던트였던 오봉석 전 교수는 ‘아이의 가슴과 척추에 박혀있던 총알을 꺼냈다. 총알이 중요 장기를 빗겨간 덕에 아이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다리는 영영 쓰지 못하게 됐다. 어린아이에게까지 총을 쏘다니 모든 의료진이 분개했다’고 써놓았다.

안영근 병원장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이지만 5·18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직접 경험한 전남대병원이 이웃국가의 비슷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후원이 미안마의 민주화 열기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목포대 ‘전남도 대학-지역연계·협력 지원’ 2개 과제 선정

목포대학교가 전남도 지원 ‘2021년 대학-지역연계·협력 지원사업’에 응모해 2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대학-지역연계·협력 지원사업’은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이 보유한 인적, 물적 인프라 등 핵심역량을 활용해 올해 12월까지 대학의 각종 지역 연계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전남도는 지역바로알기·찾아가는 창의교육·지역기반교육의 3개 분야로 나눠 공모 신청을 받았으며, 목포대는 지역바로알기 분야로 ‘남도 아트로드(미술학과)’, 지역기반교육 분야로

‘전남의 섬 생태·문화·정책기반 융합교과목 개발 및 운영(도서문화연구원)’이 각각 선정됐다.

‘남도 아트로드’는 전남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다른 시도 학생과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남도 예술 여행 체험프로그램 운영된다. 캠프는 전통미술(수묵, 민화)과 현대미술까지 남도를 대표하는 미술작품 감상을 위해 미술관과 전시관 투어로 구성된다.

또한 ‘전남의 섬 생태·문화·정책기반 융합교과목 개발 및 운영’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진을 중심으로 ‘섬 인문 지형과 지속가능성 이해’라는 교과목을 개설, 문화·생태·정책 등을 종합한 융합 커리큘럼을 개발·운영하게 된다. /채희종 기자 chae@

## 광주 북구 ‘저소득층 자산형성’ 신규 가입자 모집

광주시 북구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탈빈곤을 돕기 위한 제도다.

이에 오는 11월까지 매월 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종류의 저축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각 통장별 가입자는 3년 동안 5만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하면 720만 원부터 최대 2819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지원금의 50% 이상은 자립에 필요한 주택 구입비, 임대보증금, 월세 납입금, 창업 자금,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해야한다. 통장 가입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동행정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

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 살 론

##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